

수입차 전문 수리
블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진주시 덕진구 인우동1기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진주시 덕진구 민성동1로 55, 8층 805호(민성동, 오케이타워1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6년 2월 10일(화) 제 3264호

道, 2026년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 선포

AI로봇산업 클러스터 본격 시동
김지사 "실증·산업화 거점 육성"
1조 규모 실증밸리·메타팩토리 구축
김제·남원·새만금 특화 테스트베드
농업·건설·푸드테크·물류 집중 육성

전북자치도가 2026년을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으로 선포, 로봇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나선다. (관련기사 2면)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대한민국 AI로봇 실증·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AI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비용 상승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로봇·AI 중심 산업 전환이 가속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글로벌 로봇시장은 2021년 282억 달러에서 2030년 831억 달러로 3배 성장이 예상된다.

도는 중앙부처와 협력해 자유로운 연구개발과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기반 실증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피지컬 AI 실증 밸리를 중심으로 AI로봇 혁신 지정을 추진해 실증 특례와 규제 완화를 적용함으로써 기술의 현장 검증과 산업 확산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기반 피지컬 AI 실증 밸리'를 중심으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실제 산업 환경을 구현한 실증 메타팩토리를 조성해 연구실 기술이 즉시 현장 검증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김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2027년까지 1,066억원) △남원 스마트 APC AI로봇 실증센터 △새만금 해양 무인로봇 실증 테스트베드(2027년까지 214억원) 등 산업별 특화 실증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들어선다.

또 지역 대학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교육·실습·취

업 선순환 구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산업 확산 측면에서는 농업·건설·푸드테크·물류 등 4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김제를 중심으로 스마트팜과 AI 기반 지능형 농업로봇 국가산업단지를 2033년까지 완성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427억 원을 투입해 용접·도장 등 고위험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개발·실증한다.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해 AI로봇 기반 커스텀 푸

드 실증·제조 인프라를 갖추고, 물류 분야에서는 새만금 자율주행 실증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항만-공항을 잇는 무인 자율운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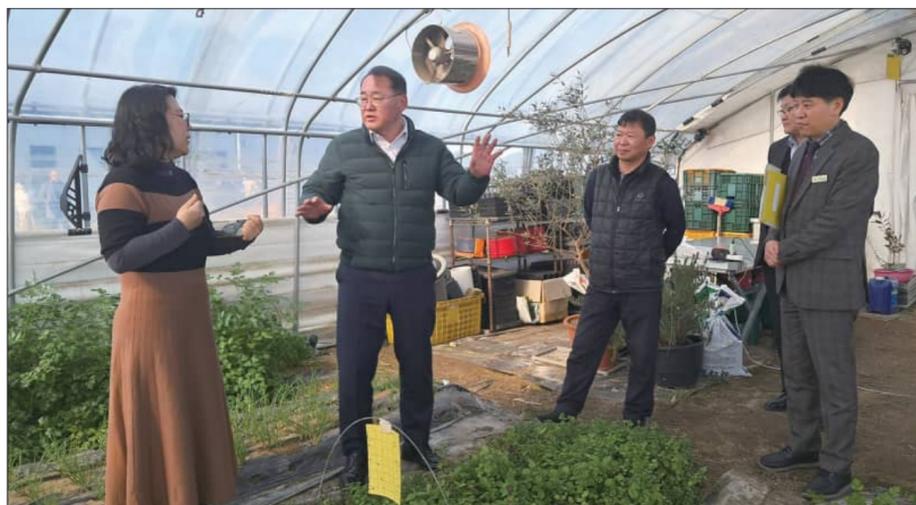
도는 이와 함께 AI로봇 핵심부품·시스템 분야의 선도기업 유지와 AI로봇 펀드 조성을 통해 창업·스케일업을 지원하고,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매칭하는 상생협력 플랫폼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은 전국 사용자 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특장차와 농기계 산업이 집적된 다품종·소량 생산 기반을 보유해

유연·맞춤형 로봇 산업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는 강점을 지녔다. 특히 새만금은 산업부지, 항만, 전력공급 등 제조·조립-시험-물류 시설이 집적돼 최적의 기업 입지 조건을 갖췄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전략은 AI로봇 기술을 실증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는 전주기 모델 구축에 의의가 있다"며 "전북을 대한민국 대표 AI로봇 실증·산업화 거점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농업활동으로 정서 치유
완주 농촌돌봄농장 방문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9일 완주군 봉동읍 농업회사법인 ㈜그라스팜을 방문해 '농촌돌봄농장' 운영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 'AI로 도정 혁신' 정책 아이디어 대공모

40일간 AI 활용 테마제안 공모
도민 10명·공무원 8명 선정
심사 거쳐 우수 제안 정책화

전북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정 혁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정책 제안 공모에 나선다.

도는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40일간 '2026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주제로 진행되며, 'AI를 활용한 분야별 대안 아이디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모 분야는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환경·산림, 도민 안전, 문화·관광 등이다. 일상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예비심사(서면)와 본심사(발표)를 거쳐 공모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우수 제안은 향후 정책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민 10명, 공무원 8명 등 총 18명을 선정하며, 도민 부문 대상 180만 원을 비롯해 등급별 시상금과 도지사상을 수여한다. 공무원 부문 역시 대상 100만 원 등 별도 상상이 이루어진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전북도는 9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AI를 활용한 분야별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사진=전북도>

를 기대하고 있다. 공무원 부문은 시·군을 포함한 도내 모든 공무원이 참여 대상이다.

참여는 '전북소통대로(policy.jb.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소통대로와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테마제안 공모는 인공지능을 생활과 행정 전반에 접목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2026년이 전북특별자치도의 AI 디지털 전환과 혁신 도약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도지사 공천권, 정치 거래 대상 아니다"

안 의원, 조국당 합당 검토 문건
'전북도지사 공천권' 의혹 비판
중앙 정치 협상 대상화 '자존 훼손'
당 지도부에 문건 경위 설명 요구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전북은 중앙 정치의 필요에 따라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다. 전북도지사 공천권은 어떤 정치적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민주당 사무처의 합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당과의 합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거론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의 도약을 이끌 책임자를 찾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을 선택하는 권한은 전북도민에게 있으며,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내용이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을 중앙 정치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인식과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전북의 실질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북을 당연한 표밭이나 정치적 자원으로 여기는 시선이

계속된다면, 전북 발전 공약 역시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정청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해당 문건의 성격과 공천권 검토 의혹에 대해 도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2면에서 계속>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타임스 http://www.jeonbuktimes.co.kr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누구나 찾고, 머물고, 살고 싶은 곳,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치를 높이고
당신의 꿈을 담아 전북의 미래를 짓습니다

도민행복 파트너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 '선택 아닌 필수' AI로봇 클러스터 총력전

상용차·농기계 강점 유연생산 전환 1조 규모 피지컬AI 실증벨리 등 국가급 인프라 집적 새만금 중심 윈스톱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AI로봇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관심을 끈다.

"AI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단순한 신산업 유치를 넘어 전북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전북의 선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로봇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미국은 제조·물류 자동화를 넘어 로봇+AI 통합 솔루션 산업으로 전환 중이고, EU는 'Horizon Europe'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Society 5.0' 기조 아래 생활로봇·케어로봇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정책으로 이미 산업로봇 시장 세계 1위에 올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생산비용 상승, 공급망 불안정성 증가 등 구조적 변화는 로봇·AI 기반 자동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123대 국정과제로 로봇을 반도체, 바이오와 함께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다.

전북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절박하다.

상용차, 농기계 등 전통 제조업은 내연기관·노동집약·저부가가치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산업 패러다임이 전기화·자율화·지능화로 급속히 전환되는 가운데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로봇산업 육성은 전북 산업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북은 산업 구조에 강점이 있다.

전북은 전국 상용차 생산의 95% 이상, 특장차 전국 최대 집적, 농기계 산업 전국 1위권을 보유한 '다품종·소량생산' 산업 기반을 갖췄다. 대량생산 체제에서는 약점이었던 이 특성이 AI 기반 유연·맞춤형 로봇 산업에서는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수요에 맞춰 빠르게 대응하는 로봇 제조 생태계 구축에 유리하다는 것.

이미 실증 인프라도 구축 중이다.

전북은 1조 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실증 벨리'를 비롯해 새만금 제조 AX 실증단지, 군산 자율운송·전기상용차 실증, 완주 수소상용차 실증, 김제·익산 스마트농업·농기계 실증, 군산항 해양·항만 무인화 실증 등 국가급 실증 인프라가 집적되고 있다. 연구실 기술이 바로 현장에서 검증되는 '현장 연계형 실증체계'가 가능한 셈이다.

특히 새만금이라는 최적의 입지가 강점.

대규모 산업부지, 항만, 전력공급, 국제공항, 규제특례 등 제조-조립-시합-물류-확장이 한 곳에서 가능한 윈스톱 생태계를 갖췄다. 전북대·원광대·군산대, KAIST·ETRI·KATRI, 자



김관영 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북 AI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AI로봇 실증산업화 거점 육성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전북도>

동차융합기술원(JIAT), 캠틡종합기술원 등 연구 인프라도 충실하다.

도의 전략은 실증 인프라 구축부터 산업 확산, 생태계 완성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피지컬 AI 실증 벨리를 중심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김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농산물 유통에서는 남원 스마트 APC를, 해양 분야에서는 새만금 무인로봇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산업별 실증 기반을 다진다. AI로봇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대학과 연계한 교육-실습-취업 선순환 구조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산업 확산 단계로 나아간다. 농업에서는 농기계 AI로봇 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설계부터 시제품, 소량양산까지 윈스톱으로 가능한 공유형 펌팩토리를 구축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고소작업 로봇과 자율행동 특수목적기계인 트랙터, 굴착기 개발로 안전성과 생산성을 혁신한다. 푸드테크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해 개인맞춤형 K-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에서는 산단과 항만, 공항을 연결하는 무인 자율운송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 핵심부품과 시스템 분야 영기업 유지를 하고, 도내 주력산업의 AX·로봇 전환을 지원한다. AI로봇 펀드를 조성해 창업부터 스케일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지역 로봇산업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 내재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의원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민주당 사무처의 합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당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1면에서 이어서>

또 "이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문건이 아니라, 당의 신뢰와 원칙에 관한 문제"라면서 "현재 당원들 사이에서는 현 지도부의 판단과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시점에, 당의 결정 과정이 충분한 공감과 신뢰를 얻고 있는지 지도부는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

도부를 거듭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전북의 미래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어떠한 밀실 논의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전북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인물을 선택할 권한은 오직 전북도민에게 있다"며 "도민과 함께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전북이 당당히 도약하는 길을 책임 있게 걸어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완주군 "완주문화원 정상화 최우선" 이전 논의

갈등 장기화에 "조속 해결" 파행 속 신임 원장 선출 추진

완주군이 장기간 이어져 온 완주문화원 사태와 관련해, 향후 문화원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원장 직무대행과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완주군 관계자는 "먼저 완주문화원 이전과 관련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군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이 지역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완주문화원이 현 원장 직무 정지, 정관을 위배한 이사회 소집 등 여러 운영상 의혹과 파행으로 인해 군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로 문화원 내부에서도 자성론과 함께 신임 원장 선출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최근 직무대행 체제 하에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 군과 원장

의 협의 등으로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완주문화재단을 비롯한 4개 단체가 이전을 완료해 협업 성과를 내고 있으며 완주문화원 역시 이러한 흐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게 완주군의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전 문제 등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문화원의 정상화가 먼저"라며, "고산면 구 문화원사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조화롭게 해결해 문화원이 13개 읍면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한 문화적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이 아닌, 법원이 인용한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관이 수행하는 법정절차로, 지난 강제집행시 문화원장과 법원집행관, 완주군청이 집행연기 이후 이의 제기 없기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근기자

이런 선정으로 각 단체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창작과 공연 제작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예술인들

과도, 시군이 함께 준비해 만든 값진 결과"라며 "전북만의 색깔을 담은 예술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 피지컬AI특별위원회 국회서 출범

전북도민회중앙회·정동영 주관 국회서 출범식·포럼 개최 AI대학원 등 5대 혁신과제 발표

다크팩토리 무인자동화비전 제시

전북 피지컬AI특별위원회가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한데 이어 피지컬AI 그리고 미래와 역사 포럼행사가 열렸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회장 광영길)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이 추진 중인 피지컬AI와 관련된 출범식을 갖는데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포럼을 실시했다.

출범식에서 광영길 전북도민회 중앙회장은 "피지컬 AI는 전북의 산업구조

를 재편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자립구조로 전환하는 핵심 열쇠"라면서 "이를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 전북도민회가 나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북이 피지컬 AI 실증도시로 기틀을 확립하면 한국은 전 공정에서 AI·로봇·LOT를 적용해 사람이 없이도 24시간 가동되는 완전·무인자동화 제조공장 '다크팩토리' 기술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피지컬 AI라는 특별한 기회를 거머쥐었다. 오늘 출범식과 포럼은 '피지컬AI 1조 프로젝트'의 초석을 다지는 시작"이라며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왜 피지컬AI인가', 왜 전북인가에 대한 심층있는 논의를 통해 실용적인 정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윤석진 전 KIST 원장은 전북 피지컬 AI 5대 혁신전략안을 제시했다.

5대 혁신전략안은 △AI실증전략으로 피지컬 AI실증 테스트 베드 구상 △AI대학원 신설을 통해 인재육성 △지역경제 혁신을 견인하는 창업전북 △자율주행 도시 전북 △제도도와 생활로 뒷받침하는 해외 인재 유입을 통해 글로벌화이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전북도민중앙회는 전북도민 및 출향인사 350만명을 대표해서 지역발전 현안과 관련, 정부에 △전주·완주통합에 따른 재정 및 제도적 지원방안 △통합 이후 발전 비전 등 중장기적인 청사진 등을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문체부 '지역대표 예술단체' 익산·장수·정읍 선정...7억 확보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도내 3개 시군 예술단체가 최종 선정돼 국비 5억2,0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단체는 익산의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연극), 장수의 예술담은 나라(음악), 정읍의 전북발레시어터(무용)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들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2개 지자체, 102개 예술단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북은 연극·음악·무용 등 장르 전반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을 입증했다.

도는 공모 초기부터 시군과 예술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 주의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자는 겨울에는 출퇴근 시간(*6~9시, 17~22시)에 빙판길 사고가 잦은데요. 지표상태에 따라 위험정도가 달라요, 비포장도로보다 아스팔트에서 햇볕이 잘들지 않는 산길, 산모퉁이, 터널전후, 다리 교각위에서 부분적으로 도로 결빙이 생기기 쉽죠.

주로 영하의 기온에서 발생

- ☑ 전날 또는 낮에 내린 눈, 비가 얼었을 때(출퇴근길)
- ☑ 산비탈에서 흘러내린 물이 도로에 얼었을 때
- ☑ 안개가 낀 습한 날이나 서리로 지면이 얼었을 때

기온이 영상일 때도 발생

- ☑ 바람이 잘 통하고 해가 잘들지 않아 기온보다 지면 온도가 낮은 곳



‘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한마음’

시, 道·대한역도연맹과 협력 국제스포츠도시 기반 마련

오는 2027년 전주에서 펼쳐지는 ‘2027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성공적 대회 운영을 위해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역도연맹과 손을 맞잡는다. 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역도연맹은

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성용 대한역도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 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회의 유치와 준비, 운영 전반에 걸쳐 세 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쓰고, 대한역도연맹은 국제행정과 경기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대회 기획·운영을 총괄하며 대회 준비 위한 경기장 인프라 정비 등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역도의 발전은 물론, 국제스포츠 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아시아역도연맹(AWF)이 주관하는 국제대회로, 회원국 도시를 순회하며 매년 열리고 있다.

/정소민 기자

“설 연휴 전주시 병·의원·약국 운영”

전주지역 7개 응급의료기관 740개 의료기관·150개 약국 운영

전주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 응급상황을 대비한 의료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 전주지역 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북대병원·예수병원·대자연병원·전주병원·새강병원·호성전주병원·고려병원 등 총 7곳의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운영된다.

또 설 당일 의료기관 33개소와 약국 24개소가 문을 여는 등 설 연휴 동안 총 740여개소의 의료기관과 150여개소 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시민과 귀성객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심야약국 3개소(사랑약국·염약국·365인후대형은누리약국)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전주다솔아동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울키즈365소아청소년과

의원)도 운영된다.

설 연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주시 누리집의 ‘설명절 연휴 통합정보 안내’ 및 전주시 보건소 누리집(health.jeonju.go.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각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 3개 보건진료소(중인, 금상, 도

덕)에서 비상 진료와 함께 각각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063-281-6200, 063-250-3900) 및 응급의료체계 점검 등 시민의 의료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학교전담경찰 전용 업무차량 현장 배치

학교폭력 예방·선제적 대응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 학교전담경찰 업무 지원 전용차량이 전북도내 8개 경찰서에 배치된다.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은 업무용 차량 부족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왔다.

이에 청소년 범죄 전반에 걸친 업무영역이 확장되며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지원이 절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의 꾸준한 예산 확보 노력에 의해 이번 달부터 친환경 전기차 8대를 입차방식으로 지원된다.



로 지원된다.

지원된 업무차량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방문 △학교폭력 △청소년 범죄 전방의 피해자 보호 업무와 가해자 선도 등 효율적 업무 수행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들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북자치경찰’ 고유 차량 랩핑 디자인을 전체 차량에 부착해 운행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친근한 이미지와 역할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철문 정장은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한습관 만들어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대상자 180명 선착순 모집

전주시보건소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대상자 18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모바일 앱(APP)과 활동량계를 이용해 24시간 동안 보건소 전문인력(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로대상자에게는 △보건소 방문 검진(3회) △개인별 건강위험요인 확인 △건강실천 모니터링 △비대면 건강상담 등이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직장인 등 19세 이상 전주시민이다.

보건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후 건강 상태와 병력 및 건강위험요인에 근거해 서비스 참여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건강위험요인으로는 혈압과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게 되며, 지난해 대상자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질환자, 약물 복용자는 참여할 수 없다.

보건소는 참여 대상자에게 보행수와 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활동량계(시계형 스마트밴드)를 제공하며, 서비스 완료 후 활동 및 개선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 모집 기간은 9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전주시보건소 3층 심뇌혈관질환 상담센터 또는 덕진보건소 2층 심뇌혈관질환 상담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새만금개발청 수상태양광 적기 구축 MOU 체결

전북도·한전·한수원과 업무협약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와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1단계) 발전사업의 적기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설비용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총사업비 3조2624억원의 대형 프로젝트다.

완공 시 연간 약 1,700G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5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정혜민 기자

“소멸 앞둔 포인트, 아이들 설 선물이 된다!”

시, 공무용 차량 멤버십포인트 활용

전주시 행정 자원 활용한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온기가 자원 선순환을 이뤄냈다. 시는 공무용 차량 운용 과정에서 적립된 ‘차량 멤버십포인트’ 총 300만원 상당을 생필품으로 바꿔 전주지역 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거나 사용처가 제한적이라, 그동안 차량 정비 외에는 활용도가 낮았다.

이에 시는 ‘버려지는 예산 0(제로)’에 도전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이를

알뜰한 살림살이로 바꿔냈다.

시는 확보된 재원으로 쌀과 라면, 화장지 등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세심하게 꾸려 아이들이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관행적으로 방치되던 공공자원을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적극 행정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숨겨진 자원을 발굴해 가치 있게 쓰는 ‘자원 선순환’ 모델을 정착시키고, 나눔과 절약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행정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설 명절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감시 체계 가동

특별단속반 편성 취약지역 순찰

전주시가 설 명절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업단지와 하천 그리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반은 연휴 전까지 취약지역 순찰과 함께 대기·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 병행에 나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설 연휴 기간에는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전주천·삼천 등

주요 하천, 하천 인접 지역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연휴 기간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방제조치가 이뤄지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연휴 이후 강력한 행정조치하고, 감시 기간 중 확인된 취약 사업장과 영세업체 등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나 오염 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나 시청 상황실(063-281-222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월 생계급여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전주시는 2026년 2월 생계급여를 명절 이전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 중 수급가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이 체감하

는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 지급 대상은 2월 생계급여 수급자 전원으로, 지급 금액은 기존에 책정된 2월 생계급여와 동일하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급여 지급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아울러 수급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명절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생계 공백을 예방하고, 저소득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지역 내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순환이 이어질 것

/정소민 기자

“전주자연생태관에서 설 명절 즐겨요!”

전통 예절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주자연생태관 특별한 “설 명절 전통 예절과 놀이를 배워요”가 설 연휴 기간 정상 운영한다.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14일부터 18일

까지 ‘설 명절 전통 예절과 놀이를 배워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단, 설 2월 17일은 제외된다.

‘설 명절 전통 예절과 놀이를 배워요’ 프로그램은 △설맞이 큰걸과 펼칠 배우

기 △웃놀이, 협동놀이 체험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아이들이 설날을 맞아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명절 분위기를 물씬 느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주자연생태관에서는 △반 닛놀이와 닛터피쉬 체험 공간 △숲속 생

태 놀이터도 상시 운영된다.

전주시 설 연휴 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 자세한 내용은 전주자연생태관 누리집(ecomuseum.jeonju.go.kr)을 통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관할통장단 위험지역 안전 점검

추락 발생 우려 지역 대상 점검

전주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는 관할 통장단과 추락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

로 ▷방지터 ▷안전펜스 ▷반사시설 설치요소 등을 사전 점검했다.

특히 추락 가능성이 높은 급경사지와 과속 도로 구간 중심으로 순찰이 강화된

다.

또 위험요인이 발견된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방호시설 및 경고 표지판 설치 등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중지구대는 야간 시인성이 낮은 구

간과 노인 보행자 통행이 잦은 장소들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주민들에게 ‘위험지역 인근 통행시 안전시설을 준수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예수병원-에터미-드리미재단’ 국외 의료봉사 “기적”

캄보디아 한 소녀에게 따뜻한 예수병원 의료나눔에 회복의 기적이 찾아 들었다.

9일 전주예수병원은 캄보디아 타리(Ren Thary, 9세) 양이 약 7주간 치료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6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타리 양은 에터미(Aatomy) 캄보디아 법인이 지원하고 있는 현지 ‘뱃머웃 초등학교’ 재학생이다.

타리 양은 현지 부족한 의료 인프라 탓에 다리 질환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장애를 안고 생활하며 어려운 환경속에서 학업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에 예수병원과 캄보디아 드리미재단, 에터미 캄보디아 법인은 타리 양의 사연을 접하고, 에터미 본사 박한길 회장에게 치료 지원을 추천했다.

박 회장은 평소 의료 선교 협력 관계를 맺어온 캄보디아 ‘PMC예수병원’ 원장에게 타리 양을 직접 소개하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글로벌 치료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예수병원도 즉각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25년 5월 캄보디아 현지 PMC예수병원에서 1차적인 재활 치료를 시작하며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후 보다 근본적인 “수술과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지난 12월 드리미재단과 예수병원의 공동 지원으로 타리 양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한국에 도착한 타리 양은 전주 예수병원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의료진의 협진 하에 정밀 수술을 받으며 이후 약 7주간 고강도 재활 치료를 이어왔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타리 양의 강한 재활 의지 덕분에 입국 당시 보행이 불편했던 타리 양은 현재 큰 호전을 보이며 혼자서 바르게 걷기가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됐다.

예수병원은 캄보디아에 PMC예수병원을 설립해 현지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농업환경보전활동’ 과학적 분석 “효과 한눈에”

농진청, 평가시스템 개발...농업의 공익적 기능 이해 폭 넓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환경보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농업환경보전활동 평가시스템’을 개발했다.

최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과제에 떠오르며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농업환경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고 마을 단위 농업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토양, 대기, 생태, 용수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환경보전활동을 실천하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농업환경보전활동은 현장에서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환경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업환경보전활동 평가시스템’은 농업환경보전활동을 대상으로 토양 보전, 수질 오염 저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객관적인 수치와 지표로 보여준다.

또 농업인이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을은 시스템에 접속해 논이나 밭에서 실천할 활동의 환경 개선 효과를 미리 살펴보고, 환경에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이나 앞으로 적용하면 좋은 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책 담당자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활동을 중심으로 정책을 보완해 보다 효과적인 농업환경정책을 세울 수 있다.

그동안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농업인의 환경보전 노력을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어 농업환경보전활동의 가치는 물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업환경보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농업환경보전활동 평가시스템’을 개발했다.

대한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과 연계해 분석 정확도와 현장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업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시스템 활용 지침 개발과 홍보로 현장 활용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김치 300통 취약계층 나눔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9일 부안군 백산면 일원에서 ‘범농협 새해맞이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김치 만들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와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치 300통을 만들었으며, 완성된 김치는 전북관내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전북농협은 매년 범농협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을 맞아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훈본부장은 “추운 날씨에도 나눔의 정성이 담긴 전북농협 여성단체 회장님들의 겨울김치가 이웃들의 식탁에 행복한 나눔으로 닿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aT,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식품기업 대상 최대 2억 지원...4월 9일까지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2026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 식품 제조기업을 9일부터 4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이다.

이번 사업은 K-푸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 제조 중소·중견 업체의 스마트공장화를 지원해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외에도, 협업 부처의 고유 기업 지원사업 제공 등 패키지 지원으로 산업 밀착형 스마트화 역량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조 공정 최적화 스마트공장 구축 △스마트공장 관리시스템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축이며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정부지원금(제조기업 자부담 1:1매칭)을 제공한다. 총 20억원 규모로 1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 품질·위생 역량 제고 지원사업 컨설팅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보증보험 지원 △현직자 지원사업 등 식품·수출기업 대상 지원사업에 1개 이상 참여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art-factory.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누리집(www.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한우의 올바른 가정 보관법’ 제시

설 명절 삼치잡이 빠지지 않고 올려지는 단골 식재료 한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한우 부위와 특성, 조리 방법,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제시했다.

한우 부위는 대부분 10개와 이를 세분화한 39개의 소분화로 나뉘고, 조리 방식에 따라 최적의 맛을 내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

농촌진흥청은 한우 구매 후 신선한 상태로 바로 소비하고, 남은 고기는 4도(°C) 이하 냉장 보관하라고 설명했다. 이때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면, 수

분 증발을 줄이고 맛과 품질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장기간 보관할 때는 공기 접촉을 최대한 차단해 영하 18도(°C) 이하에서 냉동 보관한다. 진공 포장 후 냉동하면, 육질 산화를 늦출 수 있다. 냉동한 소고기는 조리 전 냉장고로 옮겨 천천히 해동해야 영양성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푸드테크과 강근호 과장은 “부위별 특성과 조리 방법을 잘 고려해 선택한다면, 설 명절 삼치잡이를 보다 알차고 균형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일반·고도화 트랙 대상 내달 4일까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일반·고도화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설비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일반 트랙 및 고도화 트랙으로 나뉘며,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일반트랙은 보조율 50%, 고도화트랙은 70% 이내이고, 1차 급속 제조업, 급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배출업종 영위기업과 산업단지 비임주기업 등은 가점을 부여해 선정 시 우대한다.

특히 올해는 산업단지 비임주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우대혜택을 신설했고 유관기관 사업 연계 및 원가계산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 지원가능 설비를 에너지 절감형, 공정 최적화형, 배출저감형, 신재생에너지형 총 4개 유형으로 체계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부 누리



중기부(www.mss.go.kr)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ESG통합플랫폼

/정소민 기자



건강관리협회 전북지회, 사회공헌 건강검진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회는 9일 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건강검진은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등으로 이뤄졌다.

건협 전북지회 건강검진은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 상태 점검과 잠재적인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질병을 사전에 예방에 도움이 될 기대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부 중심 국가공공기관,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영태 기자

북전주농협 ‘설 명절 맞이 조합원 환원사업 실시’

청년 조합원 참여 세대 상생 의미 더해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환원사업을 실시했다.

지원사업은 한 해 동안 농협 발전과 지역 농업·사업활성화에 기여한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불가 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명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마련됐다.

북전주농협은 매년 조합원 실의 증진과 복지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 명절 지원 또한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조합원들이 직접 생산한 잡쌀을 명절 환원사업 물품으로 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다.

또 청년조합원들이 명절 환원물품을 직접 전달하며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농협의 환원사업 취지와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달한 만큼, 이를 통해 조합원 세대 간 교류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우광 조합장은 “농협은 조합원이 주인이자 근간인만큼,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명절은 조합원 모두가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북전주농협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환원사업을 실시했다.

바란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J8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설 연휴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동점포 ‘축버스’를 운영한다. <사진=전북은행>

유정기 권한대행, 국가대표 최두진 선수 '응원'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 전북교육가족 희망격려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해 설상 종목 경기가 열리는 코르티나 담페초를 찾아 최두진 선수를 응원했다.

중인 8일(현지 시간) 최두진 선수는 전북 무주군에서 태어나 무주 설천초등학교와 설천중학교, 설천고등학교를 졸업한 바이에슬론 국가대표다.

최 선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성장하며 비인기 종목 설움과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기량을 묵묵히 갈고닦아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무대에 도전장을 내민 자랑스런 선수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이날 훈련장에서 최 선수를 만난 선수의 손을 꼭 잡으며 선전을 당부했다.

더불어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의 모든 학생 선수들에게 '노력하면 된다'는 희망의 증거가 돼주고 있다"며 "은 전북 교육가족이 하나 돼 응원할 테니 후회 없는 레이스를 펼쳐달라"고 힘찬박수를 보냈다.

이에 최두진 선수는 "고향 전북과 모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동계종목 선진국의 선수 훈련 시스템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해 향후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을 방문해 설상 종목 경기가 열리는 코르티나 담페초를 찾아 최두진 선수를 응원했다.

후 도내 학교 운동부의 훈련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안전 학교 환경 조성

338개교에 학생보호인력 학교안전지킴이 465명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이 학교폭력에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38개교에 총 465명 학교안전지킴이를 투입한다.

각 학교장이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는 학교안전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자원봉사형 학생보호인력이다.

학교안전지킴이는 △외부인 출입 관리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교내·외 순회 지도 등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실태와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학교안전지킴이 제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대납·선입금 요구' 빈번

전주교육지원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 공무원 사칭한 공사·물품 대납 요구 및 사전 대금 입금 유도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수법으로는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사칭 △공사 또는 물품 계약 관련 대리 구매 요청 △특정 판매업체 소개 △대납 또는 선입금 요구 방식 등이다.

특히 전화 및 개인 휴대전화 이용 긴급한 상황 등을 가장하고, 문자메시지로 허위 공문서(계약서 등)나 가짜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

로 확장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청 및 관내 학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물품과 관련한 대납이나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약과 물품 구매는 관계 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개인 계좌 입금 요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사기 예방을 위해 △공사·물품 대납이나 선입금 요구 전화를 받을 시 응하지 말 것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전주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실 여부 확인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각 경찰서(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황호진 전 부교육감 9일 정책발표 기자회견 <사진=전북타임스>

전북현대,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모베드와 파트너십

구단 유니폼 파트너 역대 최대 규모로 확장

전북현대모터스FC가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의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와 신규 파트너십을 체결, 구단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니폼 파트너 구성을 완성했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전북현대 선수단은 올 시즌 유니폼 등번호 하단에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과 모베드 로고를 새기고 공식 경기에 나선다.

전북현대는 이번 협업을 통해 현대차그룹이 CES 등 글로벌 무대에서 제시해 온 로보틱스 비전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축구 팬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모베드(MobED)는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소형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으로,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편식 기

반 휠 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모베드는 단차, 경사, 불규칙한 노면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동 수단을 넘어 로봇 기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과 센서 융합 시스템이 적용돼, 물류·서비스·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을 갖춘 차세대 로봇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현대는 향후 홈경기 및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팬들이 로보틱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협업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유니폼 파트너사인 현대자동차 그룹 수소 사업 브랜드 HTWO를 비롯해 세계 최대 구호기구 세계식량계획(WFP), 금호타이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시즌에도 동행을 이어간다.

여기에 현대차증권과 네이버의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네이버 치치직'이 신규 파트너로 합류하며, 유니폼 파트너 라인업은 한층 확대됐다.

전북현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유니폼 파트너십은 구단

의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팬들에게 보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지조성사업단 입주기업 협의회는 국립군산대 재학생 6명에게 300만원 장학금을 수여했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지조성사업단, 장학금 수여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지조성사업단 입주기업 협의회는 국립군산대 재학생 6명에게 300만원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은 국립군산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 교육과 인재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장학금 수여는 큰 의미를 지닌다.

국립군산대 산학협력단지조성사업단은 학생 교육과 인재 양성 분야까지 확대해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2026 병오년

열린의정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의회 고창군의회

익산시, 13일까지 설 명절 시비 직불금 120억 원 지급

익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농업인 1만 5,400여 명에게 2025년산 시비 직불금 총 120억 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비 직불금 지급 면적은 약 1만 6,166ha이며, 지급단가는 1ha당 74만 2,000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원이 증액됐다.

시비 직불금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 지역 농업 기반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가운데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지와 논산·부여·서천 지역 출경자에서 경작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대상 농지는 0.1ha 이상 5ha 이하까지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기상 이변과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따뜻한 설 명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소득 보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초기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 지원

정읍시가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이 복잡한 세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월부터 세무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무서비스 보탬이'는 세무 처리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읍시의 맞춤형 청년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이번 사업이 초기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세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청년들이 정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경로목욕권 바꾸쳐 카드로 전환...편의성 강화 도모

군산시가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경로목욕권을 기존 종이쿠폰에서 바꾸쳐카드로 전환한다.

이번 바꾸쳐카드 시스템 도입은 종이형 목욕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대상자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분실 우려와 사용 관리의 단점이 있던 기존 종이형 목욕권이 바꾸쳐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어르신들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연간 지원액도 96,000원에서 108,000원으로 12,000원 인상돼 목욕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꾸쳐는 지정된 군산시 관내 34개의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돼 투명성과 효율성도 함께 강화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독거노인 6,000여 명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며, 대상자로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바꾸쳐카드를 충전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는 제도 변경에 따라 대상자들이 혼란 없이 바꾸쳐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안내 및 홍보를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군산시간여행마을, 로컬100 선정

근대문화 집적지로 평가...역사적 가치 문화적 매력 인정

군산시의 대표 근대문화 관광자원인 군산시간여행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선정하는 '2026~2027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선정은 군산이 보유한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매력이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가운데 역사성·상징성·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100곳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자원은 향후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국내외 통합 홍보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로컬100' 2기 공모의 지역 문화 공간 분야에서 최종 선정된 군산시간여행마을은 지난해 100만여 명이 방문한 군산의 대표 관광지이다.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동국사, 신흥동 일보식 가옥, 옛 은행과 상점 건축물 등 일제강점기와 근대 산업화 시기의 흔적과 함께 군산의 도시 형성과



산업·생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근대문화 집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역사 무대가 되는 '살아 있는 시간여행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또한 근대 건축물과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군산의 항구도시 시절 풍경과 시민들의 삶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관광객들에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군산시간여행마을은 그동안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전시·해설 프로그램과 축제, 체험형 콘텐츠를 꾸준히 운영하며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성장해 왔다.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관광,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한 도보 관광 코스는 군산을 찾는 관광

객들에게 '하루 머무는 여행지'가 아닌 '천천히 머무는 도시'로서의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번 '로컬100' 선정으로 군산시간여행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보도자료 배포를 비롯해 △공식 누리집 게재 △SNS 및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주요 교통거점 내 로컬100 책자 배포 △온·오프라인 인증 현판 제공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군산시간여행마을의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수도권과 외래 관광객 유입 효과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시간여행마을을 중심으로 한 근대문화 관광 콘텐츠를 더욱 고도화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코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 환급 진행

14일까지 농축산물 등 구매시 30% 환급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오는 10~14일 북부시장과 익산시장, 서동시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은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국산·원양산 수산물과 국

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각각 구매금액의 최대 30%, 농축산물 2만 원에 수산물 2만 원까지 1인당 최대 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산·원양산 수산물은 북부시장과 익산시장, 농축산물은 서동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만 적용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시 2만 원이다.

환급 방법은 당일분 영수증을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시하면 된다.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익산시장 '서울떡집' △서동시장 '서동시장 상인회 사무실' 인근에 설치되며,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은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며 "설 명절을 맞아 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찾아 알뜰한 장보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급

연 매출 1억 이하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접수 기간은 9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모두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5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하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된

다. 다만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태양광발전업 및 전자상거래업 등 시가 정한 제외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만원이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전액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오는 4월 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4172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20억 8600만원을 지원해 고정부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 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읍시는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다이로움, 새마을금고 카드 출시

시민 금융 선택권 강화 총 6종으로 확대

익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익산 다이로움'의 결제 수단을 다양화한다. 시는 오늘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다이로움 카드는 기존 4종의 체크카드(하나·농협·신협·전북은행), 1종의 선불카드(베즈플레이)에 더해 총 6종으로 확대된다.

이번 새마을금고 카드 출시를 시민들의 금융 선택권을 넓히고, 다이로움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다양한 카드 선택지를 통해 시민 편의

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보다 촉촉하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다이로움 체크카드는 익산 지역 17개 새마을금고 영업점(본점 8개소, 지점 9개소)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이로움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시민들은 2월 한 달간 기존 월 구매한도(60만 원)보다 크게 늘어난 10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6만 원의 기존 인센티브보다 4만 원 증가한 수치로, 시민 제과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또한 정책지원가맹점(86개소)과 착한가맹점(58개소)을 이용할 경우 자체

할인 10%까지 더해져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0년 1월 첫 출시된 익산 다이로움은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 2조 5,000억 원을 돌파하며, 익산을 대표하는 민생 경제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6년 발행 목표는 4,850억 원으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카드 출시와 구매해도 확대는 다이로움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이상생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발전 위한 아이디어 찾습니다"

내달 17일까지 시민 정책 접수

정읍시가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다.

이번 공모전은 정읍시민은 물론 시에 연고가 있거나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안할 수 있다. 단 중복 시상은 불가능하며 1인당 1건만 시상한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및 가족 친화 정책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체육형 관광·먹거리·축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금 활용 방안 △기타 정읍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7개 분야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정읍시 누리집에서 제안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zerobell09@korea.kr)이나 팩스(063-539-6504)로 전송하거나 시청 기획예산실(3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음식점 새 단장 희망업소 모집

익산시가 노후 음식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동시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음식점 4개소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일

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다. 선정된 업소에는 462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며, 사업비의 30%와 초과분은 업소가 부담

한다. 지원 내용은 주방·홀·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입식탁자·의자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익산시 미식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미식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음식점 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설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 등의 부정 유통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지역 내 전통시장 6곳(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대야재

레시장, 명산시장, 나운주공시장)의 농산물 상인으로 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 허위 표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용우 먹거리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라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2026년 10대 핵심사업 공유회' 열어

정읍시가 2026년 정읍시 10대 핵심사업 성공적인 추진과 시정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 행정을 주역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9일 시청 구월초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23개 읍면동 총무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0대 주요 핵심사업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정읍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핵심 10대 사업을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홍보·소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정읍의 내일을 바랄 △미래성장 산업벨트 조성 △공

공인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사업들이 단순한 행정의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일상에 녹아들 수 있도록 '체험형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총무팀장들을 중심으로 주민 눈높이에 맞춘 사업 설명과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 체계'를 가동한다.

유호연 부시장은 "모든 행정은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그 성과는 시민의 삶 속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읍면동 직원 모두가 홍보대사가 돼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창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4일까지 고창사랑 상품권 혜택·무료 셔틀버스 매일 운행

고창군이 설명절을 앞두고 5일간(10~14일) 고창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창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환급은 고창전통시장 동문 주차장 고객 편의시설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아울러 기존 장날에만 운영하던 무료 셔틀버스도 설 연휴전 매일 운행된다. 군민과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어르신과 외지 방문객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고창사랑상품권 20% 특별할인 혜택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함께 적용된다.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이 상품권 할인 구매와 환급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황민안 고창군 생활력경제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무료 셔틀버스 매일 운행에 더해,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제감 혜택이 한층 커질 것"이라며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명절 장보기 장소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생생부안 걷기 챌린지’ 참여자 모집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

부안군보건소는 군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활성화하고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생생부안 걷기 챌린지 회원을 매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생부안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을 보유한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워크온 앱에 가입하면 월 1~2회 걷기 챌린지와 함께 다양한 건강증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2월 걷기 챌린지는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챌린지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해 달성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걷기 실천에 대한 흥미와 지속 참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소는 이번 걷기 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신체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걷기 실천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소소한 성취감도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725회 지평선아카데미 술인문학자명목 초청 강연

김제시는 오는 12일 제725회 지평선아카데미에 대한민국 대표 술인문학자인 명목교수를 초청해 “술로 보는 숨겨진 한국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명목교수는 일본 릿쿄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사회학적 관점에서 전통주와 주류 문화 연구에 매진해 ‘숨겨진 한국사’ 고위 과정 주임교수, 동아일보 칼럼니스트, 농식품부 전통주 갤러리 부관장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술기로운 세계사’, ‘말술남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 술을 매개로 역사와 문화를 풀어내는 독창적인 책을 저술했으며, tvN ‘어쩌다 어른’, EBS ‘비즈니스 리뷰’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술이 단순히 기호품이 아닌 인류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창”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에게 술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명목교수는 프랑스 와인보다 김제의 술이 훌륭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술을 통한 한국사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곡창지대인 김제 지역에서 빚어진 술의 가치와 우수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부안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서

신혼부부·청년 부담 ↓ 최대 150만원까지

부안군은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민간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9년 1월 1일 이후)이며 지원 대상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

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대상 주택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로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보증금액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가 구당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제

외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대상자 선정 후 반기별 이자가 지원된다. 부안군 누리집 공고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에 접수하면 된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실내 테니스장’ 준공

총 사업비 88억 투입 군민 체육활동 선택 폭 ↑

부안군은 9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원, 전동일 부안군체육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실내 테니스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9일 권익현 부안군수와 부안군의회 의원, 전동일 부안군체육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실내 테니스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부안실내테니스장은 총사업비 88억원을 투입해 조성됐으며, 연면적 2,985㎡ 규모의 실내테니스장(4코트) 1동과 사무실 및 샤워실(370.74㎡) 1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 실내테니스장 건립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민선 7기부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변 환경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실내테니스장이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

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심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부안 실내테니스장 준공으로 실내 체육시설 이용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의 체육활동 선택 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비상진료체계 가동...의료 공백 최소화

설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실 등 운영

고창군이 설 연휴(14~18일)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고창군이 설 연휴(14~18일)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고창군이 설 연휴(14~18일)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고창군이 설 연휴(14~18일)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고창군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진료소(10개소)는 연휴 기간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하며, 권역별 진료지역을 나누어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 △군·보건소 홈페이지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철저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여, 귀성객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구분	진료시간	진료내역	문의처
보건진료소	09:00~18:00	응급진료, 일반진료	보건진료소
민간의료기관	09:00~18:00	응급진료, 일반진료	민간의료기관
응급의료포털(E-gen)	24시간	응급의료정보 제공	112
보건복지콜센터	24시간	보건복지 상담	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24시간	구급상황 상담	119
스마트폰 앱	24시간	응급의료정보 제공	응급의료정보제공

김제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9일, 제29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 분청 및 직속기관 등 38개 부서로부터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11일간 이어진 임시회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의원들은 올해 시정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청취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합리적

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마지막 날에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결의안 채택이 이어졌다. △삼의 산업을 넘어 과학 산업으로, 스마트농업 혁신도시 김제로(황배연 의원) △모아 무지 페스티벌의 글로벌 혁신 전략(전수관 의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뒤, 이어서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새만금신항 유지 촉구 및 새만금 개발청 편과 행정 규탄 결의안’과 이정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전북 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박차

통합지원협의체 출범

고창군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전격 시행을 앞두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통합지원협의체를 본격가동한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6일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정책을 심의·자문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협력 기구다.

협의체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 복지, 주거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 발굴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지역 복지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통합돌봄 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글로벌 축제로 도약

김제지평선축제가 지난해 축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농경문화를 매개로 한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가 방문객 참여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시민참여 등 주요 지표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축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축제에는 약 18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개막일에는 약 5만 명이 방문해 하루 방문객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또한 축제 기간 운영된 144개 판매·체험 부스에서 약 21억 9천만 원의 매출성과, 소비 촉진

프로그램과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약 91억 원 규모의 직·간접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간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축제 브랜드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축제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축제이자 3년 연속 전라북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며 그 가치와 경쟁력이 국내에서 충분히 검증된 축제”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정부서울청사서 명절 맞이 농특산물 홍보·판매

김제시는 9일 정부서울청사 분관 1층 로비에서 고향사랑기부 홍보와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방살리기 자매결연을 계기로 김제시와 인연을 맺게 된 외교부가 설 명절을 맞아 김제를 포함한 세 곳의 지자체에 농특산물 홍보부스를 마련해줬다. 시는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를, 농가는 생강진액, 두유 등 판매 부스를 운영해 외교부 등 정부청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시는 지정기부사업인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현장기부 이벤트도 진행해 기부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김제 지평선물 전단지, 디지털 시민증 안내 리플릿, 관광 홍보물 등을 함께 배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결연 지자체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시는 외교부에 감사드린다”며, “수도권에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남원시, 드론 실증도시 4년 연속 도전

국토부 구축사업 공모 신청 완료 드론 레저스포츠·공공서비스 참여 운봉읍 특별자유화구역 실증 강점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지난 5일 신청을 완료하고, 4년 연속 실증도시 선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실증하고, 이를 상용화로 연계해 국산 드론 기술 고도화와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간 축적해 온 다양한 드론 실증 경험과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년에는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드론 실증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남원시는 드론 레저스포츠와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2개 분야에 참여한다.

먼저 드론 레저스포츠 분야에서는 국산 드론 기체를 중심으로 한 실증을 통해 글로벌 확장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산 드론 보급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드론 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드론 문화 확산을 선도할 방침이다.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산림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산불 대응 안전체계 구축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드론을 적용

해 행정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로 이어지는 체계형 드론 서비스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1월 30일, 드론 운영 및 기술 지원이 가능한 기업·기관·학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시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경험을 이번 공모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운봉읍 덕산리 일원 14.47km² 규모의 비행 가능 구역은 산불 안전적으로 지원에 왔으며,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형 조건을 동시에 갖춘 실증 환경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점으로 평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지역 대표' 모범음식점 38개소 지정

위생·시설·식단 등 종합 평가 상수도요금 감면 등 혜택

완주군이 관내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공고히 하고 우수한 외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대표 업소들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군은 최근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일반음식점 38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관내 일반음식점 1,546개소 가운데 위생관리 수준, 시설 환경, 좋은 식재료 사용 여부,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으며, 총 38개 업소가 재지정됐다.

모범음식점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이내에서

만 지정된다.

군은 이날 지정증 교부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음식점 운영 과정에 발생하는 주요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 방향을 안내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증과 표지판이 제공되며,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등 지원이 이뤄진다. 군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지역 외식 문화의 기준이 되는 만큼, 위생관리와 안전한 음식 제공, 친절한 서비스 실천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설 명절 앞두고 검사 농산물 잔류농약 '모두 적합'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 품목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명절 성수기 소비가 많은 사과, 배, 마늘, 시금치 등 총 5개 품목 23종(채소류 13종, 과일류 5종, 버섯류 3종, 견과·종실류 1종, 곡류 1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463개 농약 성분에 대한 정밀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 결과, 23종 중 15종에서는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8종 역시 모두 법적 허용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허용 기준치 이내로 검출된 잔류농약은 일반적인 조리 과정인 껍질 제거, 세척, 데치기를 통해 대부분 제거되거나 분해된다"며 "소비자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섭취하시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농협 협력 친환경 농자재 3만여 톤 공급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와 협의회 공동살포 지역·대행단 선정 완료

완주군이 올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협과 손잡고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최근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 및 지역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농자재 업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비료 공급 물량 확정 및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협의회는 군에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의 원활한 농가 공급을 위해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 지역농협과 협업체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유기질비료 2만 8,551톤, 토양개량제 1,842톤을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공급업체 등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살포



완주군은 최근 '친환경 농자재 업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비료 공급 물량 확정 및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사진=완주군>

지역 구역 및 공동살포 대행단 선정 등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유기질비료 포기물량 최소화 및 무분별한 신청 방지 방안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협의했다.

군은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살포 대행단에서 살포가 가능한 지역은 무상으로 공동살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

완주군, 외국인 지역기반 비자 발급지원금 지급

숙련가능인력·지역우수인재 자격 1인당 30만원 지급 총 17명 선발

완주군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기반 비자 발급지원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기반 비자 전환 정책에 발맞춰 마련된 것으로 외국인 주민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발급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숙련가능인력(E-7-4)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F-2-R)로 체

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으로, 비자 변경 후 1개월 이상 완주군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의 발급지원금이 1회 지급된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7명이며, 신청 기간은 12월 18일까지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접수처는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외국인정책팀과 완주외국인지원센터 두 곳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역기반 비자 발급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가능 설명회 개최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지난 6일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도 계절근로자 도입 가능 및 결혼이민자 초청자를 436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반적 고용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2026년 2월 15일부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화되는 임금 체납 방지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가입과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 질병, 상해, 사망사고로부터 대응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내 상해보험 가입 의무 등 달라지는 사항을 집중 교육했다.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남원시의 농촌 인력 공급계획은 전년도 대비 13.7% 증가한 1,273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금년에는 참여농가 및 외국인계절근로자 증가에 맞춰 근로자의 국내 생활 거점인 숙소 안전 점검 강화 및 근로자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정기적 실태 조사를 통해 국내 생활 적응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옥천장학회, 제22기 옥천인재숙 수료식 개최

수도권·거점대 진학...이공계 강제 입시전문기업 협업 컨설팅 확대

(재)순창군옥천장학회는 지난 6일 옥천인재숙 지정관에서 제22기 옥천인재숙 수료식을 개최하고, 인재숙에서 학업에 매진해 온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수료식은 수료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진로와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올해 진학 성과를 살펴보면, 수의예, 생명과학, 공학, 교육,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대학과 거점 국립 대학에 진학하는 등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이공계 및 보건계열 진학 비율이 높았던 점이 눈에 띈다.

이러한 성과는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 조성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순창군의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재)순창군옥천장학회는 지난 6일 옥천인재숙 지정관에서 제22기 옥천인재숙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순창군>

현재 옥천인재숙에는 전문 강사 11명이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지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옥천인재숙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질적 도약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추진됐다. 입시 전문기업 (주)유웨이와의 협업을 통해 입시컨설팅 대상을 고등학교 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조기 진로 설계와 목표 설정을 지원했다.

또한, 국어 전문교육기관 '국풍'과의 연계를 통해 문해력 향상 교육을 강화

남원시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추진 본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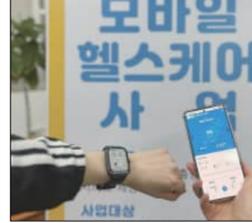
스마트밴드·앱 비대면 건강관리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우선 선정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지역 시민과 남원시 소재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활동량계(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앱(해움건강)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맞춤형 서비스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 전문가)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6개월간 참여자에게 1:1 맞춤형 건강 상담과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부터 65세 미만 남원시 거주자 또는 남원시 소재 직장인 100명이다. 최초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 요인(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자를 우선 선정한다.



남원시보건소는 오는 3월부터 추진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사진=남원시>

다. 다만 질환자와 약물 복용자는 제외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0일부터며, 정원 총원 시 조기 마감된다.

선정된 참여자는 개인별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걷기 실천, 영양표시 알기 등 주기적인 건강 미션을 받으며, 달성 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문의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주민건강증진센터 방문 또는 전화(063-620-7967, 7968)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조국혁신당 완주지역위원회 민주당 주도 통합 추진 정면 비판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완주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전주·완주 행정 통합 움직임인 '민주당의 유린'으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위원회는 9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완주군민의 자결권을 짓밟는 정치적 야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세 차례나 표출된 완주군민의 반대 의사를 무시한 채 여론몰이를 지속하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지역의 미래를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존폐는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주고받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주민 자결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는 주민을 주권자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통합 추진이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완주를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시켜 자치 역량과 재정 등을 흡수·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위원회는 행정 통합이라는 극단적 방식 대신, 각자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존중받는 실질적 상생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광역 교통, 산업, 복지 등 현안은 통합 없이도 충분히 협력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이라는 설명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설 연휴 공영주차장 5곳 전면 무료 개방

14~18일 5일간 시청 등 686면 개방 교통 앱 통해 잔여면 실시간 제공

남원시가 2026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향 방문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됐다.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은 시청 주차장(197면), 동통지구 주차타워(258면), 시장 4가 주차장(81면), 구 군청 주차장(95면), 관왕묘 옆 주차장(55면) 등 총 5개소이다.

기존 유료 공영주차장 정기간 사용자에게는 무료 개방 기간 5일을 일할 계산한 요금 할인 혜택이 3월에 적용된다.

또한, 주차장 입구 현수막 게시, 공식

SNS 및 홈페이지 공지,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을 홍보하고 남원시 교통정보 앱으로 주차 잔여 면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만족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설 연휴 기간 상하수도 비상대책반 운영

24시간 급수 중단 신속 대응 한파 대비 동파 예방 강화

순창군이 설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 중 상하수도 사고와 한파로 인한 동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하수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주민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설명절 연휴 기간 동안 상하수도 시설물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급수 중단이나 시설물 고장 등 각종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온 급강하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옥내·외 급수관

동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합 내부 보온재 충전 △노출된 수도관 보온 조치 △창기간 외출 시 수도물 약하게 틀어두기 등 겨울철 동파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설명절 연휴 동안 군민들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하수도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동파 예방 수칙과 물 절약 실천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연휴 기간 중 수도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063-650-1482 또는 063-650-509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장수군, 한해장비 양수기 일제점검... 봄철 가뭄 대비

장수군은 봄철 가뭄과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급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해장비 양수기 일제점검을 지난 6일까지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농업기술센터와 건설교통과가 협력해 총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읍·면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한해장비 양수기 51대(엔진형 41대, 전기모터 10대)를 대상으로 작동 상태와 주요 부품 이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정비가 가능한 장비는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장수군은 가뭄 및 자연재해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읍·면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해장비 양수기 사용 요령과 보관·관리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도 병행했다. 교육은 실제 활용 사례 중심으로 진행돼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방문의 해 글로벌 홍보단 힘찬 출발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전북자치도 진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모였다.

진안군은 지난 7일 진안군청 대강당에서 18개국 80명의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 글로벌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아태청년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국인 청년들이 직접 진안의 관광 자원을 체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확산이 가능한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오전 발대식에서 홍보단은 "RUN TO JINAN!(진안으로 달려가자!)"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역동적인 세리머니를 펼치며 '진안 방문의 해' 성공 운영을 다짐했다. 위촉장을 수여받은 단원들은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진안을 세계에 알리는 주체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 직후 홍보단은 전북의 주요 거점인 익산과 전주로 이동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활동은 오프라인 홍보물 배포와 온라인 숏폼 콘텐츠(릴스) 제작을 병행하여 온·오프라인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무주군, 1천원으로 즐기는 영화 '시네마 데이' 큰 호응

'무주산골영화관 시네마 데이(이하 시네마 데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네마 데이'는 오는 12월까지 무주군민이면 누구나 천 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의 지원(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을 받아 지난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되고 있다. 할인 혜택은 현장 결제 시에만 적용된다.

주민 김 모 씨(45세, 무주읍)는 "작년에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이면 삼삼오오 모여 영화관으로 향했는데 올해는 매주 갈 수 있다니 너무 기대된다"라며 "천 원만 내면 멀리 가지 않고도 최신 영화를 보고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 유익하다"라고 전했다.

상영 일정과 예매 방법 등 '시네마 데이' 관련 내용은 무주산골영화관 누리집과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 'GTWS 결승전' 개최지 확정

대한민국 최초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큰 관심' 10월 덕유산에서 개최 예정

무주군이 세계 최고 권위의 트레일러닝(Trail Running) 대회인 'GTWS(Golden Trail World Series) 그랜드 파이널(Grand Final) 2026'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트레일러닝(Trail Running)대회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회는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의 수려한 산악 지형과 깨끗한 생태 환경을 기반으로 오는 10월 개최 예정이다. 덕유산 일대는 고도차, 능선, 숲길의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수준의 탐방로 코스로, GTWS 조직위원회로부터 결승전 개최에 최적화된 장소로 평가받았다.

트레일러닝(Trail Running)은 도심의 포장도로가 아닌 산, 숲, 오솔길 등 자연 속 다양한 지형을 달리는 것으로, 일반 러닝에 비해 체력과 기술이 더 많이 요구된다. 동시에 자연 속에서 힐링과 모험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GTWS(Golden Trail World Series)는 국제적인 산악 스포츠 브랜드 살로몬(SALOMON)이 2018년부터 주관·후원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트레일러닝(Trail Running) 대회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제 무대다.



임실시니어클럽무주군이 세계 최고 권위의 트레일러닝 대회인 'GTWS 그랜드 파이널 2026'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무주에서 개최 예정인 GTWS 최종 결승전에는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전 세계 시리즈를 통과한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해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GTWS 조직위원회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운영 거점 삼아 선수·관람객·미디어 대응에 최적화된 국제 대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는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트레일러닝 거점을 넘어, 세계적인 산악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 또한 한층 높여줄 것"이라며, "세계 최고

들이 겨루는 결승 무대인 만큼 수준급의 대회 환경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달 28일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스포츠 관광·문화 전문 기획사인 주식회사 피오씨(POC Inc. GTWS 한국 조직위원회)와 대회 개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회의 지휘 및 운영 주체, 협의 역할 및 협력 사항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대회 관련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피오씨는 대회 경기 운영을 맡게 된다. 양측은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ESG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설맞이 임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내산 농축산물 당일 구입 시 최대 2만원 환급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군은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임실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1인당 2만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임실시장 내 국내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점포뿐만 아니라 인접 점포까지 참여해 총 13개 점포에서 진행되며, 참여 점포는 야채·과일 5개소 관촌상회, 우리봄이네, 임실야채, 임실건어물마트, 신풍정교, 축산물 7개소(문화하고기집, 수산정육점, 신선고기마트, 중앙정육점, 초원정육점, 한가네정육점, 지루골 축산물 판매장), 잡곡 1개소 잡곡미곡상회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행사기간 동안 농축산물을 최소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구매 당일 발행된 영수증과 휴대폰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제시하면 되며,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행사기간 내 구매 영수증 합산도 가능하며, 행사 예산 및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롯데백화점 전주점서 '장수한우' 판매 행사

한우곰탕세트장수사과오미자청 장수 대표 농특산물 함께 선보여

장수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장수한우' 선물세트 판매행사를 개최하며 '장수한우'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롯데백화점 전주점(B1 율가 매장 및 6층 장수한우명품관)에서 진행되며 장수한우 구이류와 정육류 등 다양한 상품을 백화점 고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판매 품목은 꽃등심·치마살·부채살·업진살 등 구이류 4종과 양지·국거리·불고기 등 정육류 3종으로 구성됐으며 장수한우 곰탕세트와 함께 장수사과, 오미자청 등 장수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특히 고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가 높은 최상급 브랜드 육을 활용한 특화 상품을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강화했다.

장수한우는 정정 고원미의 미네랄이 풍부한 음용수와 큰 일교차 환경에서 사육돼 육색이 선명하고 육질이 단단해 맛과 품질이 뛰어난 한우로 평가받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이번 행사는 장수한우의 강점을 백화점 주요 고객층에 집중적으로 알려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또한 장수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저탄소한우)로 지정됨에 따라 저메탄 중모우 개발과 스마트 ICT 기술을 접목한 저탄소 한우 생산체계를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품질 경쟁력과 환경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친환경 축산 모델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제1차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

진안군은 9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1차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군 기본소득위원회는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됐으며, 군수를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총 15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과 목표 설정을 비롯해 전반적인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책 방향 제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첫 안건으로 고영성 씨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참석 위원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진안군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제도 설계와 발전 방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진안군은 이번 회의에 이어 군의회 협의를 시작으로 주민 설문조사, 기관단체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춘성 위원장은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은 우리 군의 미래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위원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의료기교육이용품대여 서비스 확대

분유 셰이커·분유 포트 등 2종 추가해 총 6종 운영

무주군은 지역 내 출산 가정과 거동 불편자 가정을 위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육아용품과 의료기기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며, 육아용품은 지난해 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분유 셰이커'와 '분유 포트' 2종을 추가했다. 대여 물품은 유축기(25개)와 수유 시트(10개), 분유 셰이커(5개),

분유 포트(5개), 이유식 제조기(10개), 젓병소독기(12개) 등 총 6종으로 6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의료기기(휠체어 12대) 대여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신청하면 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대기자가 없으면 1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무주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무주군보건의료원(6층 의료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준비완료

2026년 356명 유치 앞두고 고용농가 대상 사전교육 완료

임실군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앞서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제도 안정적 정착과 인권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임실군은 지난 5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84 농가를 비롯한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주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고용농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제도 운영사항과 법적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주요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권리와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신규 기사사 준공으로 운영에 따른 운영기준과 인권 침해예방을 위

한 유의사항,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보장 등 고용주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전문강사가 참여해 근로자 인권준중과 차별금지, 폭력예방, 다문화 이해와 소통 등 인권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중심의 사례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자유롭게 제기했으며 담당부서가 직접 답변하며 제도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농가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함께 제도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임실군은 법무부 지침에 따른 필수 교육 2회에 걸쳐 모두 완료함에 따라 올해 예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56명중 280여명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설맞이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장수군은 설명절을 맞아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군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속육외광고물법상 금지된 광고물 △

미신고 명절인사 현수막 등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신호기 및 도로표지를 가리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등 보행자 안전과 교통 시야를 방해하는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일제 정비를 계기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재안 건설교통과장은 "설 연휴 전후에 읍면 내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장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딸기 세균모무늬병 분포조사 실시

선제적예찰·맞춤형방제 지도

임실군은 최근 딸기 농가의 안정적인 딸기 재배에 방해가 되고 있는 '세균모무늬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 방문해 직접 잎의 상태를 정밀 예찰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발병 농가에는 전용 약제를 이용한 긴급 방제 요령을 지도하고, 작업 도구 소독 등 농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역 수칙 교육도 병행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천소영 소장은 "고품질 딸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찰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혹시 모를 잠재적 발병 요인 파악 및 예찰을 실시해 지역 내 유입을 차단하고, 발병 시 인근 농가나 외부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현장에 방문해 직접 잎의 상태를 정밀 예찰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발병 농가에는 전용 약제를 이용한 긴급 방제 요령을 지도하고, 작업 도구 소독 등 농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역 수칙 교육도 병행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천소영 소장은 "고품질 딸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철저한 예찰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학래촌, 완주군에 돼지고기 후원
구이 어른신들께 불고기 전달**

완주군 구이노인복지센터가 구이면 소재 학래촌으로부터 돼지고기 90근을 후원받아 불고기를 만들어, 구이 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220여 명에게 전달했다.

이번 나눔을 위해 구이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사들은 장보기부터 재료 손질, 세척, 조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하며, 홀몸 어른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데 뜻을 모았다.

안정현 구이노인복지센터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지역업체인 학래촌의 후원으로 생활지원사들이 협력해 만든 불고기라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어른신들의 건강을 위해 식사 관리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은 관내 돌봄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신체·정신적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주=김명곤 기자



**익산 오산면 새마을부녀회,
설 명절 앞두고 떡국꾸러미 나눔**

익산시 오산면 새마을부녀회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떡국꾸러미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새해 첫 나눔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부녀회원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정성껏 떡국떡과 사골육수를 준비해 꾸러미를 마련했다. 이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지역 취약계층 230여 가구에 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의 안부를 세심히 살폈다.

홍공숙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떡국을 드시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올 한 해도 이웃과 지역을 위한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미란 오산면장은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부녀회원들의 마음이 전해져 모두가 포근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면 새마을부녀회는 설맞이 떡국꾸러미 나눔을 시작으로 반찬 나눔과 아이 돌봄, 김장 김치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공동체 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에 힘을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세아베스틸, 군산에 백미 10kg 570포 전달

1,767만원 상당 백미 지원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은 2026년 새해 설명절을 맞아 군산시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을 위해 사랑의 백미 10kg 570포(1,767만 원 상당)를 9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며, 새해를 맞아 희망과 따뜻한 정을 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장영수 지원본부장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출발선에서 지역사회와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세아베스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승환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나눔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희망을 전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명절 백미 기탁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후원 △여름·겨울 성품 지원 △연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주)세아베스틸은 2026년 새해 설명절을 맞아 군산시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을 위해 사랑의 백미 10kg 570포를 9일 기탁했다

현재까지 누적 약 28억여 원을 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 /군산=지송길 기자



**남원시애향본부, 학교 밖 청소년
위한 장학금 전달**

남원시가 위탁하고 사단법인 남원CYA(협회장 김범준)가 운영하는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일선)는 지난 6일 (사)남원시애향본부(회장 김경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4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금을 기탁한 (사)남원시애향본부는 남원 출신 향우들을 중심으로 고향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이다.

김경주 남원시애향본부 회장은 “학교 밖으로 나와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제 금구면, 지역 청년들과 연탄나눔 봉사활동 실시

‘온기나눔 36.5°C 프로젝트’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카페선암리와 청년공동체 선암,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해 지난 7일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람의 체온인 36.5도를 상징하는 ‘연탄 3.65kg의 기적’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외된 이웃들에게(6가구 2,000장) 단순한 연료 이상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길보른종합사

회복지관 관계자, 그리고 열정 가득한 청년공동체단원, 금구면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25명이 봉사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자들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에 위치한 2가구에는 연탄을 직접 나르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민관이 협력하고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탄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아직도 날씨가 추워 걱정이 많았는데, 젊은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연탄을 채워주니 마음이 든든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카페선암리와 청년공동체 선암,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해 지난 7일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해본코리아, 기부 답례품 쌀다시 정읍시에 기탁

정읍시는 9일 ㈜해본코리아(대표 김갑수)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백미 10kg 100포(3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김갑수 대표가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받은 답례품(백미 100포) 전량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한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김갑수 대표는 이날 기탁식에서 “정읍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는 9일 ㈜해본코리아(대표 김갑수)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백미 10kg 100포(3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포렘, 무주군에 건강음료 204박스 기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포렘은 9일, 무주군에 자사에서 생산한 ‘무주천마프리미엄’ 204박스(6백여 만 원 상당)를 기부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박미란 대표는 “좋은 재료와 정성법으로 만든 천마 제품이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식품을 만들고 이웃들



과 좋은 기운을 나누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포렘은 무주군의 청정 자연을 기반으로 천마, 홍삼, 도라지 등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그동안 무주군에 다양한 건강식품과 성금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군 산림조합, 진안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전달**

진안군 산림조합(조합장 송윤섭)은 지난 9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진안군(군수 전준성)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안군을 통해 관내 복지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송윤섭 조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산림조합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진안군 산림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마음담백, 지구를 아껴요 과대 포장 NO!

진정한 가치는 포장에 아닌 정성입니다



불필요한 포장은 쓰레기만 남깁니다



간소한 포장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一事一言〉



초고령화의 파도를 기회로 바꿀 전북 실버산업 전략

김관춘
주필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2040년 33.9%, 2067년에는 46.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더 이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기술·경제 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다.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의 향방이 갈린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전북연구원이 제기한 국가주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고령화는 위기이자 동시에 거대한 시장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실버경제 시장은 이미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실버경제 규모는 2020년 2조 달러에서 2030년 3조5천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같은 기간 3조7천억 달러에서 5조 달러로 성장해 전체 산업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독일·중국 등 주요국 역시 2050년이면 고령인구 비율이 35%를 넘어선다. 고령친화산업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고령층이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버산업은 구조적 성장산업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응 속도와 준비 수준이다. 고령인구 증가는 돌봄 수요 급증을 동반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존 노동력 중심의 돌봄 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하

다. 이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AI 돌봄로봇, 웨어러블 헬스기기, 스마트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산업이다. 정부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도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결과다.

전북자치도가 이 흐름에서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을 미래 성장동력인 실버산업의 거점도시이자 R&D 핵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가주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전북특별법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강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다.

고령친화산업은 단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성장할 수 없다. 기술개발, 시험·평가, 인증, 상용화, 수출 연계는 같은 기간 3조7천억 달러에서 5조 달러로 성장해 전체 산업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R&D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만든다면 실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등 거대 고령시장으로의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면 파급 효과는 전북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다.

전북연구원이 제안한 개발단지와 인력양성단지의 이원화 전략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발단지는 에이지테크 기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기업지원에 집중하고,

인력양성단지는 고령친화 전문 인력 교육과 창업, 벤처기업 육성의 산실로 기능해야 한다. 여기에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해 기업 유지, 인센티브 제공, 투자 연계,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전담한다면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는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의료·돌봄·요양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지만, 기술 기반의 예방·관리 중심 서비스가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의료 연계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로봇 등은 고령자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족과 사회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는 복지 지출의 증가를 산업 성장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또한 고령친화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장점도 있다. 연구개발 인력뿐 아니라 의료·돌봄·교육·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직종이 연계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에이지테크, 헬스데이터,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의 새로운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중장년층에게는 경험을 살린 재취업과 사회참여의 통로를 열어 줄 수 있다. 세대 간 고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주도의 일관된 추진이다. 개별 지자체나 기업의 단편적 시도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연구개발 투자, 규제 완화, 실증 특례, 국제 표준 연계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전북에 들어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는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고 고도화하는 국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임지 측면에서 새만금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광역 교통망과 항만·물류 인프라, 대규모 가용 부지라는 강점을 활용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산업 전략의 시험대다. 전북을 글로벌 실버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다.

초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그러나 준비된 사회에게 고령화는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된다. 전북을 거점으로 한 국가주도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은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를 선도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초고령화의 파도를 산업 경쟁력으로 바꾸는 결단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사설

AI로봇 생태계 완성, 전북 로봇산업 승부수

전북자치도가 AI로봇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로봇산업 생태계 완성의 원년'을 선언했다. 전통 제조업 중심지에서 AI로봇 실증 메카로의 대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결단은 전북 산업의 도약을 위한 승부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 패러다임이 전기화·자율화·지능화로 급변하는 시대에 전북의 선택은 필수에 가깝다.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로봇을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미국은 AI 기반 로봇 자동화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유럽연합과 일본, 중국 역시 국가 전략 차원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결합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노동력 감소, 공급망 불안정성 등 구조적 변화는 로봇 기반 자동화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고 있다. 전북의 전통 제조업 역시 이러한 변화 앞에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로봇산업 육성은 전북 산업의 생존 전략이다.

전북이 가진 '다품종·소량생산' 산업 구조와 실증 인프라는 오히려 AI로봇 산업 시대에 강점이 될 수 있다. 상용차, 특장차, 농기계 등 다양한 제품을 유연하게 생산해 온 경험은 맞춤형 로봇 산업에 최적의 기반이다.

여기에 새만금과 도내 전역에 구축되는 대규모 실증 인프라는 연구실 기술이 곧바로 현장에서 검증되는 현장 연계형 혁신 체계를 가능하게 한다. 제조·시험·물류·확장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생태계는 전북이 로봇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

다. 도는 실증-확산-상생으로 이어지는 전주거점 전략을 제시했다. AI로봇 특구 지정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전문 인력을 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농업, 건설, 푸드테크, 물류 등 전북의 주력 산업을 로봇과 AI 기반으로 전환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혁신하겠다는 구상도 주목된다. 핵심부품과 시스템 분야 앵커기업 유치, AI로봇 펀드 조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플랫폼 구축은 산업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는 중요한 장치라 될 것이다.

로봇산업 생태계 구축은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사회적 전환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 산업 구조 고도화는 지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위험하고 고된 현장을 로봇이 대체함으로써 안전한 일터가 구현되고, 물류와 서비스의 혁신은 생활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 전북에서 배우고 전북에서 일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지역 소멸의 위기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기획과 실행력이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안정적 재원 확보, 규제 혁신, 민간 투자 유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 전북의 로봇산업 생태계 완성이 차질 없이 추진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문 화 재 열 전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지정일 - 2014년 10월 3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순창군 담순로 2168-33 (적성면, 일광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 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제민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 나희덕

사랑에도 속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솔잎혹파리가 숲을 휩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순간인 듯 한 계절인 듯 마음이 번들고도 남는 게 있다면	막힌 마음을 스스로 달고서 있어야 할 길고 긴 시간일 것입니다. 수시로 병들지 않는다 하던 靑靑이 숲마저 예민해진 잎살을 마디마디 세우고	스치는 바람결에도 빛 그림자를 흔들며 걸입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 이른, 또는 너무 늦은 단풍이 든 것만 같아 그 미친 빛마저 굽습니다.
---	--	---

시인 약력 :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 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파일명 서정시'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론집으로 '보

문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뿌리에게' 당선되

햇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김수영 문학상과 미당문학상, 백석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서울과학기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북의 미래, 자연에서 시작합니다,

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운영 전국 최고 성과 달성

세외수입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보통교부세 세입 인센티브 63억원 확보



김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데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하며 세입 행정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세외수입 징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해 평가되는 바, 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 정량평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표창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은,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혁신 노력이 누적된 결과이며, 지방세 또한, 2025년도 전북도 주관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평가에서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시는 지방교부세 배부 기준 중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도'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63억 원 규모의 세입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혁신 노력이 큰 결실을 맺고 있다.

▲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 고질적 문제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전쟁
중앙정부의 교부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김제시는 자주재원 확충의 핵심 축인 세외수입과 지방세의 안정

적 확보를 위해 체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 정비했다.

시는 연중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 규모와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한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했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를 엄정히 추진했다.

반면, 납부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안내와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병행했다.

▲ 현장중심 징수체계 구축... '투트랙 전략'으로 실효성 강화

김제시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징수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징수체계 강화에 주력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체납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분기별 실적소 및 19개 읍·면·동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체납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개선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본청과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 권역별·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 추진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체납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납 안내와 즉시 납부를 유도하는 설득 중심의 징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연결 시켰다.

아울러 납세자의 인지 부족으로 발생

하는 체납을 줄이기 위해 납부 안내 문자(SNS) 서비스 확대,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예방 중심 행정도 함께 추진했다.

▲ 수지로 입증 된 재정혁신... 체납액 대폭 감소 징수를 최고수준

이 같은 전방위적 노력은 구체적인 수치로 성과를 입증했다.

세외수입은 지난 2023년 47억 원에 달했던 체납액을 2024년 말 기준 22억 원으로 줄이며 1년 만에 53% 이상 감축, 전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46%를 기록해 전국 지자체 상위 50% 징수율 평균인 20%보다 무려 26%p 높은 수치를 보이며 전국 최고 수준의 징수 효율성을 증명했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2025년도 징수 실적으로 총 1,104억 원(도세 398억 원, 시세 706억 원)을 징수하고, 전년도 기준 징수율 97.7%를 달성했다.

체납액은 전년 대비 6억 원 이상 축소되는 등 구조적인 개선 성과를 거뒀다

정수주 김제시장은 "이번 성과는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발로 뛰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확보된 세입 인센티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사업에 환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지방세(도세, 시세) 징수 목표를 전년 대비 46억 원 증가한 1,150억 원으로 설정하고,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전략과 시민 편의 중심의 납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설 명절

천혜자연 장수군의 맑은 물로 가꾼 장수군 농특산물과 함께!

장수군농특산물

NAVER | 장수물MALL